

최첨단 TV분야에서 한·일간 경쟁의 향방*

- 향후 최첨단 TV분야에서 경쟁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, 일본의 소니와 파나소닉 등 4파전이 될 전망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
- 경쟁의 성패는 단순히 유기EL TV의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, 누가 응용기술의 유연성에 강점을 갖고 유기EL TV의 기술을 사용한 획기적인 응용제품을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 있음

* 이 자료는 로이타통신의 무라이 레이지(村井 隼二)칼럼니스트가 4월 16일자 「REUTERS 일본사이트 : 日韓 有機EL 競争勝敗の行方」에 기고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□ 최첨단 TV분야에서의 한·일간 경쟁은 시작에 불과

- 삼성전자와 LG전자가 '12년 1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(CES)에서 55인치형 유기EL TV개발을 발표한데 이어, 소니와 파나소닉이 '13년 1월 CES에서 56인치형 유기EL TV개발을 발표
- 일본기업들은 1년 뒤지긴 했으나, 기술에서 한국에 질 수는 없다는 각오
 - － 일본기업들이 발표한 유기EL TV는 풀 버전의 4배나 되는 해상도를 가진 4K로서 한국 기업들의 풀HD를 능가
 - － 이를 두고, 한국의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은 일본기업들의 발표가 한국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고 지적
- TV의 화질경쟁도 이제 한계에 이르러, 4K도 풀HD도 큰 차이는 없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, 이미 시장경쟁이 포화상태인 유기EL TV는 최첨단기술을 다투는 분야임
 - － 가격이 액정TV의 10배나 되는 유기EL TV에 관심을 가진 고객들은 최첨단 기술에 흥미가 있기 때문에, 근소하지만 일본기업들의 스펙이 우위에 있다면, 한국기업들의 유기EL TV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임

□ 유기EL TV분야의 LG·삼성·소니·파나소닉 간 경쟁

- LG전자가 '13년 1월부터 세계 최초로 55인치형 유기EL TV 예약판매를 시작했으나, 시장의 예상으로는 예약대수가 월 100대 정도에 불과

- 유기 EL TV의 대형 패널 양산에 난항을 거듭,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하나, 유기EL TV의 상품화에 앞서려고 하는 의욕은 대단하다는 평가
- 삼성전자도 2012년에는 상품화를 실현하지 못했지만, 이르면 '13년 중이라도 발매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
- 모바일 용도가 주류인 현재, 유기EL시장에서는 스마트폰 갤럭시에 같은 패널을 탑재함으로써 삼성전자가 90%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
- 한편, 유기EL TV분야에서 제후를 맺은 소니와 파나소닉 양사 모두, '13년에 패널의 양산화 기술을 확립한다는 계획만 발표, TV의 제품화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
- 무엇보다도 패널의 양산화기술 확립이 우선이며, 유기EL TV의 양산은 그 이후에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
- 유기EL TV의 상품화를 서두르는 한국기업들의 움직임에 일본기업들은 침묵으로 일관
- 그러나 이에 대하여 「일본이 또 한발 늦었으며, 유기EL TV분야에서도 한국에 이길 수 없다」는 견해는 경솔한 판단이라는 지적
- 유기EL TV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, 야마나카대학 키도 준지(城戸 淳二)교수는 유기EL개발은 아직 제 2고지에 불과하며, 응용기술의 유연성에 따라 거대한 잠재시장이 있다고 강조
- 유기EL패널을 탑재한 TV 발매에 뒤지더라도, 주된 경쟁무대는 TV가 아니고, 기존 TV의 고정화질에만 국한한다면, 액정의 경쟁과 동일함
- 유기EL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깨끗하고 소비전력이 낮을 뿐만 아니라, 수 밀리미터 크기의 필름모양으로 가공하여, 접쳐진 롤 모양으로 감아서 뺄 수 있음
- 영상을 비추는 거대한 필름이 등장하게 되면, 기존의 TV의 개념을 뛰어넘어 한 장의 벽지로 됨
 - 그 벽지는 세계 각국의 리조트나 관광명소의 풍경을 비쳐주고 멀리 떨어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, 그 벽지를 천정에 붙이면 밤에도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름

- 물론, 벽지의 윈도우 화면을 터치패널로 보기 쉬운 크기로 수축하면, 텔레비전과 같이 수요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마음대로 보는 비디오·온·디맨드(video on demand)를 즐길 수도 있어 용도가 무한대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
- 그러나 현실은 소니도 파나소닉도 2013년도는 적자사업의 손실보충을 위한 사업 구조개혁이 한창임
- 이에 비하여 삼성전자는 2012년 12월기 2.5조엔의 영업이익을 내고 스마트폰 판매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능가하는 등 당분간은 그 지위가 흔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

□ 한·일 간 진검 승부는 이제부터

- 그러나 유기EL TV기술의 진면목이 모바일이 아닌 대형화에 있다고 한다면, 한·일 대결구도는 이제부터임
 - － 키도 교수에 의하면, 대형 유연한 필름화의 재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일본의 부품업체나 수지 제조업체들임
- 쓰가(津賀) 파나소닉 사장은 3월 28일 중기경영계획에서 가전과 건설자재를 하나로 통합한 가전, 이른바 「벽화(壁化)」를 새로운 테마로 하여 추진 중이라고 함
 - － 앞에서 언급한 롤 모양으로 감아서 뺄 수 있는 유기EL필름이라면 벽화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
- 소니의 간부는 지금의 유기EL TV라면 한국기업들이 팔도록 하면 되고, 본 승부는 응용기술의 유연성에 있다는 것
 - － 유기EL TV기술을 사용하더라도 55인치~56인치형 대형 TV를 발매하는 것만으로는 단지 TV의 신상품에 불과
 - － 기술개발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만이 유기EL TV의 기술을 사용한 획기적인 응용제품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

<참고자료>

REUTERS 일본사이트(2013.4.16.) http://jp.reuters.com/article/jp_blog/idJPTYE93F00U20130416